4개 부처 합동 최대 창업경진대회 열린다

'도전 K-스타트업' 이달 내 접수
상위 10팀 총 상금 16억원
외국인·재외동포 부문 신설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가 열린다. 올해는 상금도, 기술보증기금 후원 금액도 대폭 늘어난 만큼 광주·전남지역 초기 창업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4개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열려= 7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교육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4개 부처는 합동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18'을 개최한다. 각 부처별 경진대회 입상자들이 모여 '최종 결선'을 치르는 방식이다.

'도전! K-스타트업 2018'은 2016년부터 진행된 우수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는 부처 합동 경진대회로, 각 부처는 이달 말까지 예선을 거쳐 우수 창업자(135개팀)를 발굴할 예정이다. 그 후 9월부터 시작되는 통합 본선 등을 통해 경쟁, 최종 왕중왕전에 10팀이 진출한다. 대회 전 과정은 TV를 통해 올 하반기에 방영된다.

특히, 올해는 국내 스타트업에 국한하지 않고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참가를 유치하기 위해 예선 내 '글로벌 리그'를 신설했으며, 고급 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자를 유치하고자 지난해 대비 왕중왕전 수상팀(10개팀)에 대한 상금뿐만 아니라 기술보증기금 후원 금액도 대폭 확대했다.

총 상금은 왕중왕팀 10팀 5억4000만원에서 16억원으로, 기술보증기금 후원은 본상 10팀 총 57억원 이내에서 총 91억원 이내로 늘렸다. 참가팀의 창업 성장에 실질적인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 권리화 지원, 투자 유치 기회 마련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및 투자 상담회 개최, 유망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등의 후속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K-스타트업 2018 부처·기관별 경진대회

	교육부·과기정통부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	
예선 대회명	대학 창업유망팀 300 (학생리그)	국방 스타트업 챌린지(국방리그)	혁신 창업리그 (창업리그)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글로벌 리그)
참가 대상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휴학생 가능)	전역(퇴직) 예정 현역 장병 및 군무원	전 국민	외국인 및 재외동포
접수처	29일까지 changgo.or.kr	10일까지 msc.or.kr 및 이메일	29일까지 k-startup.go.kr	14일까지 k-startupgc.org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대학 창업유망팀 300'= 우선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선 대회로 '2018 대학 창업유망팀 300'을 개최한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화 성공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개최해 올해가 3회째다. 대학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업 뿐 아니라 대학원생의 고급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두 가지 트랙으로 구분하여 총 300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첫 번째는 실전창업 트랙으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250개의 창업팀을 전국 5개 권역에서 나눠 선발한다. 두 번째는 기술창업(실험실창업) 트랙으로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기술 기반의 창업팀 50개를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300팀은 팀당 상금 50만원과 함께 전문가 멘토링 및 온라인 육성과정 참여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우수 실전창업팀 50팀에게는 추가 상금 각 100만원과 우수 기술창업팀 10팀에게는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내 소재 모든 대학의 재학생과 휴학생, 수료생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창업유망팀300' 홈페이지(changgo.or.kr)를 통해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02-2156-2295.

◇국방부 '국방 스타트업 챌린지'= 국방부는 혁신적 아이디어로 도전하는 창업 주역을 발굴하고전역 장병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창업경진대회 '국방 스타트업 챌린지'를 개최한다.

올해 7월1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전역하는 장교 및 부사관과 이후 전역하는 병사가 참가할 수 있다. 국방 스타트업 챌린지에 출전하려는 장병은 팀(2~4명)을 꾸려 오는 10일까지 까지 창업 아이디어를 국방인트라넷 또는 대회 홈페이지, 이메일로 응모하면 된다.

국방부는 응모 아이디어에 대해 6월 중 서류심사를 통해 30팀을 선발하며, 이후 대회 주관기관(사단법인 스파크)의 멘토링과 인큐베이팅을 통해 아이디어를 창업 아이템으로 발전시켜 7월 중 최종 20팀을 선발한다. 최종 선발된 20개 팀에게는 성적에 따라 300만원(1~5등), 200만원(6~10등), 100만원(11~20등) 등 총 3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혁신 창업리그'와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잠재력을 가진 예비 또는 초기 창업자를 발굴, 경연을 통한 창업능력 배양과 포상 등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화 기회 제공하기 위해 '혁신창업 리그'를 개최한다. 모집분야는 제한이 없는 대신, 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아이템은 제외다.

참가자 기준은 지난달 31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전 국민이 해당한다. 초기 창업자의 경우 201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개인·법인이다.

이달 29일 오후 6시까지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중기부는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도 진행한다. 학사학위 이상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귀환유학생 중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하 창업기업이 참가대사으로, 역시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오는 14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해수부 '수산 기술 사업화'
시설 자금까지 지원 확대

해양수산부는 7일 '수산 연관기술 사업화 자금 지원사업'의 대출보증기관과 지원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15년부터 '수산 연관기술 사업화 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수산 분야 우수기술 보유 기업의 기술 사업화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지원해줬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한 곳이었던 대출보증기금에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추가되며, 운영자금으로 한정됐던 자금 지원범위는 시설자금까지로 확대된다.

기술보증기금이 대출보증기관으로 참여함에 따라 1·2차 생산 및 수산가공업뿐만 아니라 수산 연관 3차 서비스산업도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업체당 10억원 내에서 운영자금은 물론 건물·토지를 제외한 시설자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삼성전자 사내벤처 육성 삼성전자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인 C랩의 3개 우수 과제의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C랩을 통해 창업에 나서는 3개 과제 참여 임직원이 모여 기념촬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조계헌 소장의 톡톡 창업이야기

'까다로운 입맛' 좋은 재료로 승부

외식업소 운영을 하다보면 자영업자들은 좋은 음식과 경쟁력 있는 가격대의 음식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고객들은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는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하면서도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외면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결국 외식업 창업시 예비창업자의 마인드에 따라 고객들이 다소 가격적인 부담을 느끼더라도 좋은 음식을 선택하여 운영하는 사람들과 고객들의 가격 부담을 최소화 시켜주기 위해서 식재료의 품질 저하를 감수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대의 음식을 선택하는 경우로 나뉘게 된다.

소비자들도 이런 시장 상황에 맞춰서 좋은 식재료를 쓰는 좋은 음식에 조금은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선호하는 그룹과 수입 식자재 위주의 구성을 해서라도 부담없는 가격대의 음식을 선호하는 그룹으로 나뉜다. 물론, 가끔 특별한 날이나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의 자리에서는 좋은 음식을 좋은 가격으로 먹으려는 특별한 소비성향의 노출도 고객들에게는 일상화된 흔한 풍경이다.

외식업 창업을 앞둔 예비창업자들은 이런 시장의 상황으로 인해 업종의 선택이나 가격의 설정시 상당한 고민을 하게 된다. 하지만 차분하게 시장을 살펴보면 의외로 답이 보인다. 음식점이 무조건 싸다고 성공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가격파괴형 음식점들은 모두 성공했어야 한다. 하지만 가격파괴형 음식점들의 생존수명이 꼭 길지만도 않았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또 좋은 식재료만을 사용하여 좋은 음식에 승부를 띄운 다소 비싼 가격대의 음식점들이라고 성공확률이 높았던 것도 아니다.

결국 자신이 창업 예정인 후보 점포가 위치한 상권과 입지 그리고 주 고객층, 잠재고객층의 수준에 따라 좋은 식재료를 쓰고 조금 더 비싼 가격을 설정해도 살아남을 수 있느냐와 원가절감에 집중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저가형 음식점으로 설정해도 살아남을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고 봐도 크게 무리한 시각은 아니다.

학생이나 젊은 고객층을 상대해야 하는 상권에서는 가격은 절대 경쟁무기다. 그러다보니 좋은 식재료만의 승부로는 오히려 고객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십상이다. 직장인이 주를 이루거나 소득 수준이 높은 주거단지의 인접 상권에 위치했다면 가격으로 승부를 거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하며 좋은 음식으로 승부를 거는 편이 훨씬 승산이 높다.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해 주말여행이 많아진 상황에서 시외지역 상권의 음식점들은 가격으로 승부하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위험하고 좋은 식재료로 승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유명 맛집 중에서 가격파괴형 유명 맛집은 많지 않다. 가격으로만 승부하면 더 낮은 가격대의 경쟁업소가 생기거나 수익성의 악화로 인해 결국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니 상권의 특수성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을 필요로 하는 상권이 아니라면 대개의 경우는 여전히 좋은 식재료로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경쟁력 있는 선택이 아닐까 싶다.

또한, 과거에는 음식 맛에 대해 고객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맛은 외식업체의 기본 소양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일반화됐기에 맛뿐만이 아니라 좋은 식재료에도 욕심을 내보면 어떨까?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장〉

예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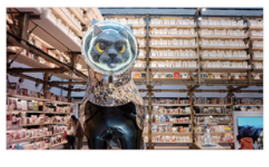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8년 6월호

5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화제의 전시·공연
화제의 전시
ACC, 리얼리즘 미술 & 영상전
폭력과 저항, 전쟁과 평화를 보는 예술의 시선
화제의 공연
열정과 기량, 매력적 무대 매너
'앙상블 디토' 공연
정윤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저항과 선택㉓
그루지야의 기야 칸첼리 & 에스토니아의 아보 패르트

노중훈의 꿈의 여행㉘
각고의 노력으로 탄생한 명주를 만나다
일본 간사이 사케 여행


동네 책방에 빠지다-책방별곡⑫
도쿄의 '핫플'이 된 서점들
책 & 라이프 스타일 파는
도쿄 츠타야 서점

예향 초대석
40여 년간 분단현실 그려온 화가 송 창
"미학과 시대정신 함께 갈 수 있어요"

광주폴리 다시보기⑤-1차 폴리 명과 암
공간의 적정성, 소통 여부가 만든
사랑스런 폴리 & 거추장스런 폴리

문향이 숨 쉬는 문학관을 찾아서⑧
한국비평문학사 발자국 남긴
평론가 김환태

트렌드 따라잡기⑮
위장에 행복 채우기 위해 검색하고, 기다리고…
밀레니얼의 식사법

전시 리뷰 <오일 - Zero(無) 전>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

예향이 만난 이사람
개그맨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변신한 고명환
KBO리그 최고령 세이브 기록 KIA 맏형 임창용
광주독립영화관GIFT 관장 윤수안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㉚
연예인 수명과 롱런 스타의 비결은?